



명사초청 최혜자(最惠者) 포럼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는다”

초청명사: 다원디자인(주) 조서윤 사장



“사람중심 경영마인드 접목 ‘사람을 위한 효율’ 최우선”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특강...업계 1위 ‘다원디자인’ 조서윤 사장

입력날짜 : 2013. 12.04. 00:00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제 경영철학은 ‘글씨가 아닌 사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직원들의 ‘심적 사기 상승’과 뛰어난 ‘디자인 능력 향상’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디자인 분야 업계 1위 ‘다원디자인’의 조서윤 사장이 3일 특별강연을 위해 맥지청소년교육원을 찾았다. 이날 강연은 지난 2008년부터 이광래 맥지청소년교육원 상임이사와 맺어온 든독한 인연에서 비롯됐다.

조 사장은 이날 자신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인간의 편의와 기업의 이념을 디자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오피스 디자인이다”며 “과거에는 ‘건물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기초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행해져 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위한 효율’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1996년 직원 3명과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는 직원 수만 100명이 넘고, 수주액 1천400억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에 대해 ‘다국적 기업’과 ‘오피스 디자인’이라는 핵심 영역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 올려줘야 한다”며 “또한 상업예술이기에 트렌드를 적절히 따라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 이것들을 적격히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창립 2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다원디자인’은 현재 회사의 이미지를 재경립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조 사장은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이 있다. 이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며 “늘 배움의 과정을 통해 디자인 경영의 발견과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http://www.kjdaily.com>)에서 프란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kjdaily.com

“꿈을 향한 도전으로 인생을 디자인 하세요”

맥지 강연차 광주 찾은 다원디자인 조서운 대표

2013년 12월 05일(목) 00:00

가+ | 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동경만 갖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꿈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청춘이라면 저희 다원디자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원디자인 조서운(여·53) 대표는 광주 전남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루기 위해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 이하 맥지)이 주관한 ‘최혜자(嚴惠者)포럼’이 광주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 많은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최혜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은 시민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여수세계박람회에 저희 업체가 참여하면서 여수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광주는 처음이네요. 이곳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민주화운동이 떠오르며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낯선 공간이지만 맥지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이 환대해 주셔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원디자인은 지난 1995년 직원 3명과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했다. 설립 10년 만에 연매출액 520억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14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는 업무공간을 디자인하지만 ‘사람을 위한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인간의 편의와 기업의 이념을 담은 디자인을 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회의장 디자인을 맡아 실용성과 심미성을 함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홍익대 대학원에서 원광대 이강래 교수를 만나며 맥지와 인연이 시작됐다. 맥지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 특성화교육을 펼치는 맥지를 설명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던 조 대표는 이러한 ‘맥지정신’에 공감해 지난 2008년부터 법인이사를 맡아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물질만능으로 돕고 있다. 맥지 회원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 그녀는 학생들에게 열정과 여유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꿈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하죠. 꿈이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은 실감할 수 없겠지만, 사회인이 되면 훨씬 더 바빠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청소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학창시절을 맘껏 누렸으면 좋겠네요.”